



이달의 혁신주인공 감염병관리과김영욱 주무관 선정

전북도 감염병관리과 김영욱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 올해 12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김영욱 주무관은 코로나19 전북도 총괄 방역대응반의 주무 담당자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예방 및 치료 체계 구축 등 주요 업무를 도맡아 담당해 오고 있다.

김 주무관은 그동안 코로나19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 환자의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행정명령으로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또한, 선별진료소 구축부터 확진 환자 치료 전담병원 구축까지, 체계적인 대응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 전북도가 2020년 감염병 관리·예방 최우수기관(대통령표창)으로 선정되는데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에, 코로나19 일일 상황 전달과 방역수칙 준수 당부를 위해 도 브리핑 준비는 물론, 매주 화요일마다 라디오 방송(KBS 패스트 전북 프로그램)에 고정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어 도민과 행정을 잇는 코로나19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영욱 주무관은 "코로나19 대응인력을 대신해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북도 각 부처와 시·군 및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방역 현장을 지켜 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상 기자



조경훈·조훈민 부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남원시는 조경훈·조훈민 부자(父子)가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경훈 씨 부자는 13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과 나눔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손길을 전하고 있고, 아들 조훈민씨는 지역봉사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조훈민(33세)씨는 "부모님이 시작한 기부의 뜻을 본받아 참여를 지속하기로 결심했으며, 작은 것을 베풀고 큰 기쁨을 얻는 기부참여로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 개선”

유니온시티, 미세먼지 회피형 승강장 기증



공장이 몰려 있는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버스승강장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안심 버스승강장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14일 (주)유니온시티(대표 유혜숙)에서 1억 원 상당의 미세먼지 회피형 승강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팔복동 제1산업단지 내 노후시설 및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 야전리 버스승강장이 미세먼지 회피형 승강장으로 교체됐다.

미세먼지 회피형 승강장에는 ▲공기 청정 순환시스템 ▲냉방기 ▲온열의자 ▲미세먼지 표출모니터 ▲블랙박스형 CCTV 등 편의 시설이 포함됐다. 특히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제품을 자동 제어할 수 있으며, 원격 점검도 가능하다.

유혜숙 (주)유니온시티 대표는 "미세먼지 회피형 승강장 기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축산물로 정 나눔 행사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14일 전주시 효자동 소재 (사)삼김을 방문해 연말연시 소외계층 돕기 나눔축산운동 축산물 '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이병철 전북도의원, 이영순 삼김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전북농협은 전주시 소재 12개 복지기관을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돼지고기(전지 300kg, 4백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소외계층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해 축산물을 전달하는 정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온정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특별성금 1500만원 후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4일 전주 대지인병원(병원장 이병관)에서 특별성금 1500만 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의료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나눔을 통한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대지인병원 이병관 원장, (사)대지인건강사랑후원회 김중연 이사장,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최철우 안골지점장, 최강성 사회공헌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사)대지인건강사랑후원회를 통해 독거 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보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시작에 큰 의미가 있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빛은행으로서 ESG경영확대와 지



역밀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금암2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밀반찬·위문품 전달

전주시 금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동열)는 14일 영양 가득한 밀반찬 4천과 생필품(70만 원 상당)을 저소득 취약계층 및 홀몸어르신 2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에서 금암2동 지사협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영양 가득한 반찬과 화장지 등 생필품(70만원상당)을 전달했다.

박동열 위원장은 "어르신들께서 추운겨울을 건강히 보내실 수 있도록 밀반찬을 준비했다"며 "준비한 생필품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우석대 배종진 교수, 우석학원에 발전기금 2000만원 기부

우석대학교 배종진 교수(한약학과)가 학교법인 우석학원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법안사무국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금 전달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배종진 교수 정희석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배종진 교수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학교법인 우석학원에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라며 "출연된 기금이 약소하고 학교법



한약학과에서 본초학과 약용식물학, 포제학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인 우석학원의 초석을 다지는 데 활용될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창훈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법인 우석학원과 대학을 생각하는 배종진 교수의 마음이 깊이 감동된다"라며 "내실 있고 강한 대학 교육 수요자는 물론 시대와 사회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석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3년 부임한 배종진 교수는

중앙동 해바라기 봉사단, 이웃돕기 백미 전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해바라기봉사단(회장 김순덕)은 14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독거어르신 등에 전달해 달라며 중앙동 주민센터(동장 최훈석)에 백미10kg 10포를 기탁했다.

김순덕 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살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석 중앙동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중앙동 해바라기봉사단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